

잘 단련된 현악기의 음정 체계(1)

글 에르완 리사 Erwan Richard 번역 정지운 본지 기자



활(Bow)을 쓰는 현악기 주자들은 음정과 억양(인토네이션)을 완벽히 조절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일생에 걸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 과정은 끊임없는 인내심과 함께 '완벽한 음정 내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연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악기는 '미리 정해진, 혹은 제자리에 있는' 음정(4개의 개방현을 제외하고)도 없거니와, 손가락이 올바른 자리에 놓이게끔 하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 세심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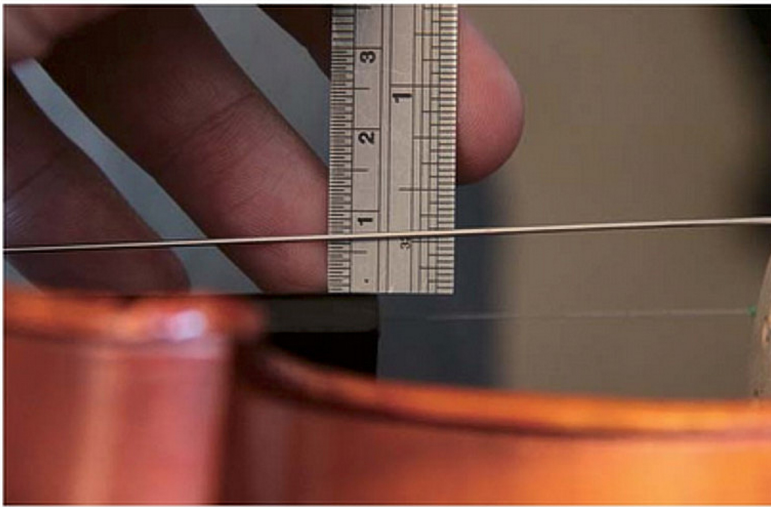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밀리미터(Millimeter)에 이르는 움직임 조절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손가락을 훈련하고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게 가장 나은 방법으로 적응시켜야 한다. 위와 같이 '완벽한 음정 내에서' 연주하기 위해 연주자는 신체적으로 지판 위에서 정확한 자리에 손가락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체적 움직임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체적 훈련

몸의 자세, 특히나 팔을 쓰는 자세는 어떤 현악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않다. 팔은 몸에서부터 멀리 떨어뜨려 올리고, 왼쪽 손목은 꺾이며, 일상생활에서 거의 할 일이 없는 각 손가락의 독립성이 연주 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판 위에서 정확하고 알맞은 움직임을 원한다면 우리는 좀 더 강한 신체적 준비를 해야 한다. 정확한 근육의 짜임, 유연한 관절, 적당한 근육의 힘과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음으로 연주를 하려 할 때, 손가락은 보통 평소에 쓰지 않는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학생이 훈련을 할 때에, 천천히 훈련해서 정확한 자리에 손가락을 두려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손은 안정적인 모양으로 유지하면서 엄지와 중지·약지가 안정적으로 힘의 3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더블스탑(Double Stop, 중음



(重音)은 각 손가락의 독립성과 손과 손가락의 정확한 자세를 훈련하는데 좋은 연습이다. 많은 교사들이 손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매우 현명한 연습방법을 남겼다. 대표적인 예로 <셰프치크(Ševčík)>, <쉬라디크(Schradieck)>, <두니스(Dounis)>, <크로스만(Crossman)>, <페이야드(Feuillard)>, 그리고 첼로를 위한 <슈타커(Starker)> 등의 교본이 있다.

신체적인 능력을 기르는 동안 우리의 머리는 복잡한 움직임의 연속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아이가 근육을 발달시키고 동시에 그 구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듯 근육 사이의 거리와 각도, 압력까지 외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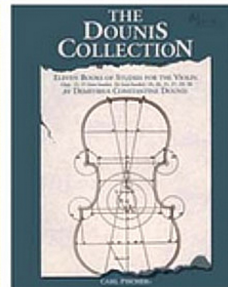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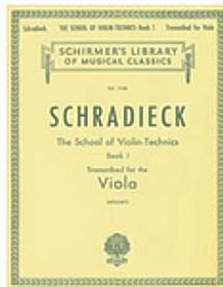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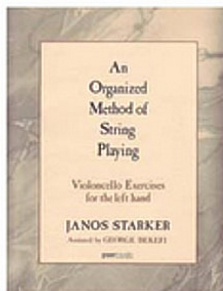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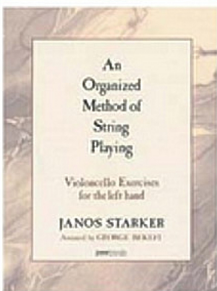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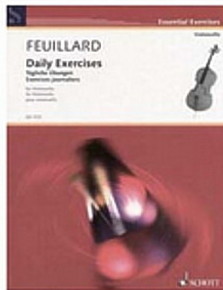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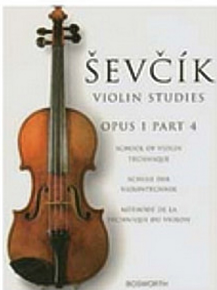
내재적인 청음 훈련

경험상 좋은 인트네이션(Intonation, 음의 상대적인 높이의 변화, 즉 음조, 억양이라고도 한다)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손을 훈련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피치(Pitch, 음높이)로 연주하길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음의 구조는 어떤 음의 관계(수평 혹은 수직적으로)에서든 한 음이 정확하면 상호적으로 억양이 잘 발달하게끔 되어있다. 이는 음표를 동시에 화음으로 연주하거나, 한 음을 따라오는 관계나 앞서서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좋은 인트네이션(음의 상대적인 높이의 변화, 음조)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것은 머릿속에서 미리 스스로 연주 하고자 하는 피치(Pitch, 음높이)에 대한 선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손가락이 어디로 갈지 분명히 생각하지 않고 연주하는 것은 스스로 뚜렷한 목적 없이 연주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연주자는 팔과 손가락의 정확한 움직임을 이끄는 '내재적인 귀'를 개발해내야 한다. '내재적 귀'를 발달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연주전에 그 곡을 노래로 불러보는 것이다. 느린 박자에서 첫 음을 연주하고, 멈추고 다시 그 다음 음을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이다. 만일 음정이 다르다면 항상 이전의 음을 반복하면 된다.

이 과정은 연주자가 연주하기 이전에 혼자 내면으로 듣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고, 아주 빠른 박자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대부분, 노래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준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음정이 다를 때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본인이 가지는 음정과 피치에 대한 세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㉞ <다음호에 계속>



손 모양 훈련을 위해 제작된 여러 교재들